

물 없이 태평양 횡단 완도 광어 대박났다

'無水冬眠' 상태 운반 ... LA 도착후 '펄떡펄떡'

물에 담그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미국 LA로 수출된 완도산 광어 대박을 터뜨렸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무수동면'(無水冬眠) 운반법을 사용해 미국 LA에 수출된 완도산 광어 3t(5만달러 상당)이 미국 현지 유통업체에서 전량 판매됐다.

살아 있는 광어가 물 없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한국해양개발원이 개발한 '무수동면' 운반법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무수동면' 운반법은 생물의 생체리듬을 인위적으로 조절, 동면 상태에 빠뜨린 뒤 일정시간 후 원상회복시키는 최첨단 기술이다.

지금까지는 활어를 수출하려

면 물이 담긴 비닐봉지에 물고기와 산소를 넣고 밀봉한 뒤 상자에 넣어 항공기로 옮겨야 했지만 '무수동면'을 이용하면 물을 넣지 않고도 포장 가능해 운송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물 없이 활어를 포장하면 과거보다 운송비용을 50~60% 절감할 수 있어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지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무수동면' 운반법으로 미국에 수출된 완도산 광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운송된 광어보다 가격이 저렴한데다 훨씬 싱싱하고 육질이 좋아 현지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홍영기기자 redplane@



김대기(오른쪽)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옥상에서 옛 전남도청 일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 현장을 살펴본 뒤 시공사측 관계자로부터 사업 현황을 설명 듣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도청 별관 존치 절충안은 곤란”

광주 은 김대기 문광부 2차관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5일 “옛 도청 별관의 일부 존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절충안이 나온다면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사무실에서 광주일보 기자와 만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부지를 직접 살펴보니 별관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은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제1회 아시아생태문화국제컨퍼런스” 개막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했다.

그는 현재 광주 지역에서 별관을

관을 매듭짓기 위한 합의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과 관련, “어떤 결론이 나오지 예측할 수 없지만, 별관철거라는 기존 설계 콘셉트를 훼손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광태 시장 등 ‘10인 대책위’를 중심으로 별관 문제 합의안 도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별관철거’라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 것이어서 향후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어등산 '불발탄' 제거 내달 말까지 마무리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결실물이었던 '불발탄' 제거작업이 다음 달 말까지 개발행위지역에서 완료돼 골프장과 유원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육군

보병학교가 지난 2007년 4월부터 해 온 불발탄 제거 작업이 오는 7월말까지 골프장과 유원지가 들어설 개발행위지역에서 모두 끝난다. 현재 개발행위지역의 불발탄 제거율은 90%를 웃돌고 있어 장마와 무더위를 고려하더라도 다음 달 말까지 개발행위지역에서 불발탄을 모두 제거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도시공사는 전망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빛日만평

- 김중두

MB한텐 안통하니 이쪽이라도 ...

준엄사 할머니 한때 위독

서울대 2명은 사망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 중단 방식의 준엄사가 공식 시행된 김모(77) 할머니의 상태가 한때 악화해 의료진과 가족이 환자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5분께 김 할머니의 체내 산소포화도가 83%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다시 올라 오전 11시 현재 94%를 유지하고 있다. 산소포화도는 정상치가 95% 이상으로, 90% 이하로 내려가면 호흡이 곤란해져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김 모 할머니의 가족 측은 이날 오

전 병원의 과잉진료로 인한 피해 등을 주장하며 이미 낸 소송 내용을 바꾸는 위자료 청구 취지 변경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말기암환자의 연명치료 거부사를 명문화 한 '사전의료지시서'를 받기 시작한 이후 2명의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해 사망했다고 이 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가 25일 밝혔다.

연명치료를 받지 않은 2명은 각각 위암과 대장암으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투병 중이었던 환자로, 가족들이 사전의료지시서에 대신 서명을 한 뒤 1~2일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경남 창원시 풀판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 제24차 정기총회'에서 광주일보 유제철(오른쪽에서 두번째) 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신문제공>

“경품 규제완화 신문법 개정 반대”

지방신문협회 정기총회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김종렬 부산일보 사장)는 무가지, 무상경품제공 등 불공정 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신문법 개정에 강력 대치하기로 했다.

광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25일 오후 창원 풀판호텔에서 제24차 정기총회를 갖고 신문법 제10조 2항과 3항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조항을 삭제할 경우 지방신문의 생존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사장단은 현재 중앙지의 무가지, 경품 제공으로 지방신문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불공정행위 규제

를 완화하면 중앙지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86조의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금지 조항을 확대 해석, 통상적인 자치단체의 광고까지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며 신문협회를 통해 선관위에 선거법 확대 해석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광주일보 유제철 사장, 강원일보 이희종 사장, 경남신문 최용기 대표이사, 경인일보 송광석 사장, 대전일보 신수용 사장, 매일신문 이창영 사장, 부산일보 김종렬 사장,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1 대입도 3不 정책 유지

이주호 교과부 차관 來光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고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을 금지하는 이른바 '대입 3불(不)'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 대입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 정상화,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모집시기는 수시, 정시, 추가모집으로 구분되며 2010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 1학기 모집은 시행되지 않는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0년 11월11일 시행되고, 성적은 2010년 12월8일 통지된다.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대학학정보센터 홈페이지(univ.koue.or.kr)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26일 광주를 방문한다.

이 차관은 이날 호남대 광산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대입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한 뒤 위례중학교를 둘러볼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光州日報 廣告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 직통:(062)227-9600
• FAX:(062)227-9500

주식 매각 공고

1. 대상 주식
가. 주식종류: (주)미래산업개발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나. 액당 수량: 김용상 74,227주 / 김광우 29,846주 (총합보유주식 400,000주의 23.13%)
다. 배당기일: 2009. 03. 01

2. 회사 개요
가. 설립연월일: 2001년 2월 1일 (사업자등록번호: 408-01-44833)
나. 사업영역: 포도 포도주제조
다. 자본금: 229,500만원 (자본총액 5,479,400만원 - 2009.03.31기준)
라. 2008년 매출액: 2,631백만원

3. 입찰
가. 일시: 2009. 06. 30 14:00 - 16:00 나. 장소: (주)미래산업개발 회의실
다. 계약금: 회관수입 경영자금 라. 야간거래: 10,437원/주
마. 참여자격: 100주 라. 1인당 참여한도: 제정없음
사. 권리사항
① 주식참여(소유권) 1부 (대리인인 경우 위임권 제외)
② 인건증명서 1부 ③ 인건도장
④ 종래경리인 임명권 및 종래경리인 임명권 증명서 1부
⑤ 사업계획서 등 사안(가장은 신원보증인사(주인보증, 여권, 운전면허증 가능))
⑥ 참여신청서 접수일 이후 1주일 이내 (제1회당첨률 50%)

4. 낙찰시 권징 및 계약조건
가. 낙찰자 선정: 2009.07.01 10:00 개별문보
나. 낙찰금
- 예금거래 이의제 단가로 일괄한 자금 회계가 임원자부터 순서로 매각수령이 가능
해가지고 일괄한 자금 수령이 가능하다.
- 동일 개시 일괄수령이 불가하면, 그대로 수량이 동일할 경우 추후으로 결정한다.
다. 계약금
- 낙찰금으로 7월1일 계약금 지급하며 잔액 전액 7월1일 내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금의
약하여 결정한다.

5. 기타
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010-5070-46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기 사항은 사전공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에 희망이시면 반드시 입찰금
회하여 미리 숙지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09년 06월 26일
(주)미래산업개발 주주 김용상 / 김명구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나만의 특별한 유학, 알고가자 !!

아일랜드 유학 설명회

Study Abroad & English Language Seminar 2009 ★ IRELAND
아일랜드 조기 유학 및 교환학생 / 어학연수 / 인턴쉽 / 영어캠프

- ◆ 아일랜드 전문가 한국 방문 설명회
- ◆ 비자걱정 없는 나라 / 안전하고 친절한 나라
- ◆ 교육강국 / 인력강국 / 젊은 나라 아일랜드
- ◆ 적은한국인 / 인턴쉽 기회 풍부
- ◆ 행사일시: 7월17일-부산 / 7월18일-서울 / 7월19일-광주

“광주” - 7월19일 일요일 2pm 김대중 컨벤션 센터 2층 203호

❖ 아일랜드 유학 설명회 참가신청 ❖
전화신청 - 광주 010-4159-3114 / 아일랜드+ 353-87-635-7817 / 070-8285-7817
이메일 신청 - sunny@com2ireland.com 또는 leo-david@hanmail.net
홈페이지: 청/바/지 http://cafe.naver.com/ohero 카페사이트에서 '참가신청' 클릭

주최 | 청소년의 바람직한 유학생활 지원센터 아일랜드 현지본사 COM2IRELAND LTD